

한글
판권

일본지식인과 중국문제

고야스 노부쿠니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이웃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다. 경제적 관계를 아무리 심화시킨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냉담한 관계이다. 왜 그럴까? 중국문제에 관한 고찰은 바로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나의 고찰도 이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이 말을 본론 말미 어딘가에 적어 두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굳이 이 논문의 ‘머리말’로 삼고자 한다. 일본은 중국과 왜 본질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 글에서 역사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이국’(異國)화

근세 일본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¹⁾의 저작 가운데 『나오비노미타마』(直毘靈)가 있다. 이것은 노리나가의 주저 『고지키덴』(古事記伝)의 서문으로 쓰인 글이다. 이 『나오비노미타마』에는 “이 편은 도(道)라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노리나가가 여기에서 말한 ‘논의’라는 것은 유가적 교설로서의 ‘신도’(神道)를 일본 고유의 ‘신의 길’(神の道)로 되돌리기 위한 논의(논쟁)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서 노리나가 등이 일본 고유의 ‘신의 길’을 처음으로 말하기 전까지 ‘신도’란 유교적 교의로 구성된 ‘유가신도’로서 존재

* 지은이 | **코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1933년생. 가나가와현 출신. 도쿄대학 졸업.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일본 사상사론. 담론에 대한 고고학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아 모토오리 노리나가, 오구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 후쿠자와 유키치 등에 관한 사상사적 검토를 행해 왔고, 근래에는 야스쿠니신사문제와 종일관계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폭넓은 사상사적 논의를 행하고 있다. 저서에 『事件』としての徂徠学, 『本居宣長』, 『漢字論 — 不可避の他者』, 『方法としての江戸 — 日本思想史と批判的視座』, 『“アジア”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 — 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이승연 옮김,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2003), 『国家と祭祀』(김석근 옮김, 『일본의 야스쿠니, 야스쿠니의 일본』, 산해, 2005),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精読』(김석근 옮김,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을 정밀하게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7), 『日本ナショナリズムの解説』(송석원 옮김, 『일본 내셔널리즘 해부』, 그린비, 2011)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지은이의 홈페이지는 <http://homepage1.nifty.com/koyasu/>

1)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에도시대의 국학자, 문헌학자, 의사. 자택 스즈노야(鈴屋)에서 문인들을 모아 강의하여 스즈노야노 우시(鈴屋主人)라고도 불렸다. 당시 해독불가 상태였던 『고지키』(古事記)의 해설에 성공해 『고지키덴』을 썼다. — 옮김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신도’는 유교나 불교의 교의적 조력을 얻고서야 비로소 교설의 지위에 설 수 있었다. 따라서 ‘신도’가 ‘유가신도’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²⁾가 주자학자이면서 동시에 스이카신도(垂加神道)의 개창자라는 것에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이가 노리나가이다. 그는 『고지키』, 『니혼쇼키』(日本書紀)의 신화를 통해 일본 고유의 ‘신의 길’의 존재를 말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가신도’에 대한, 또는 신도의 교의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유교 그 자체에 대한 해체적 비판을 수행해야 했다. 노리나가는 악의적인 매도라고도 할 수 있는 ‘가라고코로’(漢意)라는 말로 유가교설의 ‘이국성’을 철저히 폭로했다. 일본의 ‘신의 길’을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유교를 ‘이국’적 사유로 매도하여 추방하는 언어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나오비노미타마』에서의 ‘도라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중국을 ‘이국’(異國), 즉 자신인 ‘일본’과 구별되는 타자로 삼아야 비로소 문화적으로도 ‘고유의 일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³⁾

노리나가는 ‘고유의 일본’을 발견했다. 이것은 동시에 그가 ‘이국’으로서의 ‘중국’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지식인이 ‘중국’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노리나가 등 국학자들의 언설에서부터이다. 이때 ‘중국’이란 자기(일본)와 다른 것으로 변별되는 타자로서의 중국이다. 이 타자로서의 ‘중국’이라는 의식은 근대 이후에도 특히 문화와 언어에 짙게 드리워진다. 그것은 일본의 ‘한자’(漢字)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⁴⁾ 한자를 배제하면 일본어라는 문자언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한자는 가장 중요한 언어적 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漢)의 문자라는 타자성의 표식을 계속 부여받아 온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나오비노미타마』라는 ‘도’(道)

2) 아마자키 안사이는 에도시대 초기의 주자학자이자 신도가이다. 인간의 마음(心神)은 곧 천신(天神)과 동일한 근원을 갖기에 동일하다는 사상을 펴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심신을 자택의 사당에 모셨다. 신사의 명칭은 스이카신사(垂加神社)이다. — 옮긴이

3) 나의 노리나가 해석에 관해서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岩波現代文庫, 2001)와 『노리나가학 강의』(『宣長學講義』, 東京: 岩波書店, 2006)를 참조.

4) 『한자론 — 피할 수 없는 타자』(『漢字論 — 不可避の他者』, 東京: 岩波書店, 2003)를 참조.

의 논의는 ‘와분’(和文)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⁵⁾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자거나 혼용체(漢字かな交じり文)라는 문자언어로서의 일본어가 메이지시대에 성립하기 전까지, 논쟁 등의 이론적 전개와 주장을 기술하는 문장은 한문이였다. 와분은 가사나 수필, 일기, 서간을 쓸 때 사용했다. 그런데 노리나가는 새삼 『나오비노미타마』를 와분으로 썼던 것이다. 이 와분이란 우리 내부의 ‘한’(漢)을 이질적인 것으로 변별하고 바깥으로 밀어냄으로써 고유의 ‘일본’을 발견한 것임을 말해 주는 문장이다. 국학적이라고 불리는 일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성립했던 것이다.

2. 정체(停滯)된 중국

일본의 위정자와 식자들이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19세기 동아시아에 내습한 서구의 충격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은 서양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다. 1840년 아편전쟁과 중국의 패배는 바쿠후(幕府) 말기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이중의 충격이었다. 첫번째 충격은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구미의 국력이 가져온 충격이었다. 두번째 충격은 그 군사력에 속절없이 무너진 대국청의 실상이 가져온 충격이었다. 이 충격을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조슈번(長州藩)의 젊은 개혁가들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가장 예민했던 조슈번이 마침내 일본의 근대혁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메이지유신이라는 일본의 근대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을까?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의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은 메이지 8년(1875)에 간행되었다. 『문명론의 개략』은 근대 일본의 여명기에 문명론적인 일본의 설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그 명시적인 설계란 근대 일본이 어디에 위치하여 자신을 문명국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이때 어떤 골격과 토대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설계적 지침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나는 후쿠자와의 사후 백주년이었었던 2001

5) 와분은 와고(和語)를 주로 하여, 특히 히라가나로 쓰여진 문장. 헤이안(平安)시대의 와카(和歌), 모노가타리(物語), 일기(日記) 등에서 보이는 문장을 말한다. — 옮긴이

년에 그 책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후쿠자와의 설계의 어떤 점이 그 후의 일본에서 실현되었고 혹은 실현되지 않았는가? 또는 근대 일본은 후쿠자와의 설계를 뛰어넘어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실현했던 것인가? 후쿠자와의 설계와 근대 일본의 역사를 대조해 보는 일은 나에게 매우 뜻 깊은 작업이었다.⁶⁾

후쿠자와는 근대 여명기 일본에서의 논의가 ‘문명을 본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문명·문명화’를 기준 또는 목표로 하여 논의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 ‘문명’이란 이념형으로서의 서양 근대문명이다.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짙어진 영광이란 서양 근대에 자리한 문명화의 설계를 최선의 설계로 삼아 이를 처음으로 일본국민에게 제시한 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후쿠자와는 근대 일본의 아버지로서 일본의 지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쿠자와는 “문명은 짝이 있는 말”이라고 한다. 그것은 느낌과 빠름, 가벼움과 무거움처럼 서로 대응되는 짝을 가진 말이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문명’이란 ‘야만’에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이다. ‘문명’을 ‘진보’의 동의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체’ 또는 ‘퇴보’를 반대개념으로 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문명 사회의 성립에 관한 후쿠자와의 문명사적 서술은 반문명적인 정체된 사회를 일방적으로 서술해 가는 것으로 귀착된다. 바꾸어 말하면, 후쿠자와는 ‘동양적 정체’라는 개념으로 이른바 전제적 제국으로서의 중국을 그려 냈던 것이다. 후쿠자와의 서술은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 ‘동양적 정체’의 이미지를 되풀이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후쿠자와의 문명사적 서술이 헤겔의 역사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헤겔의 역사철학은 유럽의 문명성립사를 원형적으로 대표하고 있을 따름이다. 어쨌든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사회적 진보와 변화를 억누르는 일원적인 전제적 지배상태 그대로 정체된 제국이라는 중국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일본인의 눈앞에 제시했던 것이다.

6) 子安宣邦,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精読』(東京: 岩波現代文庫, 2005)를 참조.

진시황제가 백가쟁명이라는 세상의 논쟁의 기운을 일소한 이래, 천하는 다시 독재에 의한 전제정치로 귀착되었다. 왕조는 바뀌어도 사회의 존재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최고의 권위와 최강의 권력이 한 명의 천자에 집중되어 세상을 지배한다. 이 전일적 지배제도에 가장 유용한 것이 공맹의 도(유교)였기에 오로지 그것만을 세상에 전했던 것이다.(『문명론의 개략』 제2장)

이 글을 읽으면 후쿠자와의 전제적 중국론은 천황제 국가론에 대한 암시적 은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신성(神聖) 천황을 받들어 모시는 메이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전제적 제국인 중국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중국에는 왕조의 교체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계(一系)의 천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미토학(水戸学)의 국체론이나 복고적 천황친정론(天皇親政論)에 대한 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제적 중국론이 천황제 국가론을 암시적으로 은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논의는 후쿠자와론에서 다룰 문제이다. 여기서는 근대 여명기의 일본인들이 제법 이른 시기부터 후쿠자와가 그려 낸 정체된 전제적 제국으로서의 중국 이미지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그런데 전제적 제국으로서의 중국의 정체성을 말하는 후쿠자와의 문명론은 기조(François P. G. Guizot, 1787~1874)의 『유럽문명사』(*Histoire de la civilisation en Europe*, 1828)와 버클(Henry T. Buckle, 1821~1862)의 『영국문명사』(*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1857~1861)를 전제로 한 일종의 ‘번역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이 점에 관해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후쿠자와가 ‘번역의 언어’를 통해 서양 근대문명에 입각한 근대 일본의 문화적 문자언어를 창출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찍이 노리나가의 국학적 외분은 ‘한’(漢)을 ‘일본’과 다른 것으로 변별하고 배제했다. 이제 서양에 터잡은 후쿠자와의 ‘번역의 언어’는 정체된 ‘지나’(支那)를 기술하여 그것을 문명적 진보의 반대 이미지로 재구성해 간다. 후쿠자와의 이러한 ‘번역의 언어’야말로 근대 일본의 정통 언어였다. 그것은 근대 일본 지식인의 언어이기도 했다.⁷⁾

3. '동아'의 세계

근대국가로의 이행에 성공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문명적 중심의 위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10년 전, 세기전환의 시기에 '동아'라는 지역적 호칭에 관해 고찰해 본 적이 있었다. '동아'라는 지역적 호칭의 성립과 동아시아에서의 문명적 중심의 이동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껏 만몽(滿蒙)이라 불렀던 중국 동북부, 한반도, 일본열도, 나아가 류큐에서 타이완을 잇는 도서지역, 그리고 월남이라 불렀던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이 '동아·동아시아'로 불리고, 이 지역에서의 문화가 '동아문화권'으로 회자된다. 그러나 '동아'나 '동아문화권'이라는 말은 과연 원래부터 있었던 말일까? 『젠카이』(『言海』, 1891)⁷⁾를 보더라도, '동양'이라는 어휘는 있어도 '동아'는 없다. '동아'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용어이다. 나는 앞에서 이 지역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아'의 세계란 원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문화적 세계이다. 정치적으로는 중화제국에 책봉관계로 포섭된 세계이고, 문화적으로는 중국문화권 또는 한자문화권이라 불리는 세계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동아'라는 호칭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물며 '동아문화권'을 말할 일은 더더욱 없다. 따라서 '동아' 또는 '동아문화권'은 중국의 주변에서 기존의 '중화적 세계'를 부정하고 전유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의 문명적 중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강렬하게 의식했던 근대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동아적 세계'란 일본제국과 함께 성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 '동아'라는 지역개념이 새롭게 이념성을 띠고 선전되기 시작했던 것이 쇼와(昭和)의 중일전쟁 시기였던 것이다.

7) 국제적 관계, 동서의 문명문적 관계 속에서의 근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 성립은 지극히 언어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8) 메이지시대에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 1847~1928)가 편집한 일본어사전으로서, 일본 최초의 근대적 일본어사전이다. — 옮긴이

9) '동아'라는 지역개념의 성립에 관해서는 「昭和日本「東亜」の概念」(『アジア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 東京: 藤原書店, 2003)을 참조하라.

4. 중일전쟁과 '동아'의 이념

중일전쟁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사변'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대륙에 전면적으로 군사개입을 한 '전쟁'이었다. 쇼와 16년(1941),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려던 무렵,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4년째로 접어든 바로 그 해에 중국 본토에 투입되어 있었던 일본육군의 총 병력수는 약 138만이었다고 한다. 이 수는 육군의 총 동원수의 65%에 달하는 것이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대륙에 대한 이 대규모 군사개입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지나사변'이라고 불려왔던 것이다.

일본이 중국을 명시적으로 제국주의적 야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러일전쟁(1904~5) 이후이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병합(1910)하여 만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 경제공황과 함께 시작된 쇼와일본은 안팎의 폐색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주사변(1931)으로 돌진했다. 이 사변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관동군 청년장교들이었다. 이후 쇼와일본은 몇 차례의 쿠데타를 거쳐 군부와 시즘의 양상을 강화해 갔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7일의 루거우차오(蘆溝橋)에서의 발포사건이 정부의 불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서의 전면적 전쟁으로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일본 측이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고 부른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든 정당성이 결여된 전쟁이었다. 100만이 넘는 병사들은 전쟁의 이유도 목적도 종착점도 알지 못한 채 중국대륙의 전장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전쟁'이라 부르지 않았던 이 전쟁의 목적을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수상은 "제국이 회구하는 바는 동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신질서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동아신질서성명", 1938. 11)는 말로 표현했다. 고노에가 말한 '동아신질서의 건설'이라는 전쟁목적은 기성사실로서의 제국주의적 전쟁에 사후적으로 덧붙인 정당화의 논리이다. 물론, 이 시기에 '신질서의 건설'을 말한 데에는 전쟁의 종결까지 포함한 정치전략적인 의도도 반영되어 있었다. 어쨌든 '동아신질서의 건설'이라는 전쟁목적의 이념화와 그 구체화의 구상은 정권담당자 고노에를 뒷받침한 정치집단인 쇼와연구회(昭和研究会)¹¹⁾에 모인 지

10) 瀧田厚, 『日本は支那をめぐりたり一日中戦争とは何だったのか』, 東京: 同時代社, 2009.

11) 쇼와연구회는 1933년에 설립된 고노에 후미마로의 정책연구단체이다. 1940년 11월에 폐지되었다. 단, 정식으로 발족

식인들에 의해 제출된 것이었다. 그 지식인이란 정치학자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1895~1980), 철학자 미키 기요시(三木清, 1897~1945) 등을 말한다. 나아가 공산주의자였던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実, 1901~1944)나 현대중국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 등이 이들을 지원했다.

전쟁이 수행되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신질서의 형성이란, 전쟁당사국이 전쟁 목적으로 늘 제창한 슬로건이었을 것이다. 쇼와 1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뛰어난 지식인들이 중국대륙에서의 이유 없는 전쟁에 이유를 덧붙이는 작업, 혹은 ‘불의’의 전쟁에서 무리하게 ‘정의’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중국에서의 전쟁을 ‘동아’에서의 신질서 형성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신질서가 구현될 구성체를 ‘동아협동체’라 부르고 있었다. ‘동아’란 바로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재구성하기 위해 제출한 지정학적 개념이었다. 이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치학자는 ‘동아협동체’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적 세계질서의 재편성이라는 세계적 정치과정 속에 위치시켰고, 철학자는 유럽 중심적 세계사의 전환이라는 역사철학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했다.

그러나 중일전쟁기 일본논단을 풍미한 이 ‘동아협동체’론에는 본질적인 아포리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민족주의’라는 아포리아이다. 중국에서의 일본의 전쟁수행이 중국의 민족의식을 폭넓게 각성시켰고 중국민족이라는 항일 주체를 만들어 낸다.¹²⁾ 나는 몇 년 전 국회도서관에서 중일전쟁기 잡지목차에서 ‘동아협동체’론을 찾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지식인이 ‘지나사변’의 의의를 분식(粉飾)하던 논설, 즉 ‘동아협동체’론을 게재한 그 잡지에 후스(胡適, 1891~1962)의 「항일전의 의의」(『文藝春秋』 1938. 1)가 실려 있고,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의 「지구전의 의의」(『改造』 1938. 10)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후스는 거기에서 항일전을 통해 중국은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마오쩌둥은 항일전의 정의가 전국적 단결을 불러일으켜 승리가 확실해졌다

수속이 취해진 것은 1936년 11월이다. 주재자는 고토 류노스케(後藤隆之助, 1888~1984)였다. — 옮긴이
12) 이것을 당시의 중국정세론이나 동아협동체론 속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것이 바로 오자키 호쓰미였다.

고 말하고 있다. 쇼와 13년(1938)이라면 중일전쟁이 시작되어(1937. 7) 난징공략(12월)의 소식을 듣고 국민이 환호했던 바로 그 이듬해이다. 이 시기 일본의 잡지는 이 전쟁을 통해 항전주체로서의 중국민족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잡지편집자의 식견이 이 시기까지는 그나마 겨우겨우 지면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들의 식견과 노력을 통해 겨우 알려질 수 있었던 ‘중일전쟁의 사실’, 즉 항전주체로서의 중국민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본지식인 일반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항일전을 통해 형성된 중국의 민족주의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공산주의자였던 오자키 호쓰미와 아시아주의자인 다치바나 시라키 등 극히 소수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반제·반봉건투쟁을 거치면서 중국인민의 강고한 민족주의전선이 성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들 역시 이 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5. 중일전쟁은 끝났는가?

중국이란 쇼와일본의 문제였다. 쇼와일본의 국가적 운명, 즉 국가가 어디로 나아갈지 그 역사적 귀추를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국문제였다. 쇼와 10년대에는 중국문제가 중일전쟁이라는 최악의 군사적 전개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어떤 이유도 아무런 비전도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일본은 중국대륙에서 본격적인 군사적 전개를 수행했지만 군부도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그것을 ‘사변’이라 불렀을 뿐,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 ‘지나사변’이라는 전쟁은 단기전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장기화되어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빠져들었다. 중국대륙에서 군사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이 사태 속에서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했다.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한 이 개전을 통해 중국대륙에서의 일본의 모호한, 이유도 없는 전쟁은 새삼 정당화되었다. 이 개전을 통해 중국과의 전쟁을 정당화했던 것은 단지 정부나 군부만이 아니었다. 국민도 그랬다. 이제까지 사람들을 눌러 왔던 답답한 기분은 이 개전으로 한결 밝아졌다. 당시 아홉 살의 소년이었던 나는 라디오에서 개전소식이 흘러나왔던 그 아침의, 주

위를 감돌았던 그 이상한 흥분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철학자 시다 쇼조(信太正三, 1914~1972)는 교토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소집되어 중국전선에 던져졌다. 쇼와 16년(1941) 봄이었다. 그해 12월, 시다는 전투훈련 중 부상당해 바오딩(保定)의 육군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미영을 상대로 한 개전의 소식이 육군병원에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전체가 이상한 흥분으로 달아올랐고”, 병실의 한 부상병은 “해냈어!”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고 한다.¹³⁾ 중국대륙에서 전쟁에 종사하고 있던 병사들이 미영과의 개전 소식을 듣고 환호했던 것이다. “해냈어!”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묘하기까지 하다. 그건 그만큼 그들이 대륙에서 종사하고 있던 그 전쟁 자체가 매우 복잡한 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전선의 병사도 후방의 국민도 1941년 12월의 그날, 이제 정말 ‘전쟁다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중국과의 ‘전쟁’은 계속 ‘사변’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불렸다. 말하자면 중일전쟁은 국민의 의식 표면으로 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감춰진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5년의 종전(終戰)도 일본과 그 국민에게 태평양전쟁의 패전이었지 중국대륙에서의 패전은 아니었다. 누구나 일본은 미국에게 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의 거의 모든 도시를 불태웠으며 일본을 점령했고 또 전후처리로 주관했다. 그 결과, ‘전쟁’의 결착은 국가로서도 국민의 의식 속에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라는 것이 실상 중국대륙에서 벌어진 진흙탕 전쟁에서의 패배이기도 했다는 점을 정부도 국민도 외면하려 했다. ‘전쟁’이라고 불린 적 없었던 중국대륙에서의 전쟁은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의해 결착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일 간의 결착이었을 따름이지 중일 간의 결착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격화된 중국내전과 인민중국의 성립 이후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 간에 진정한 의미의 결착은 유보되었다. 전후의 중

13) 信太正三, 『私の戦争体験記』, 東京: 理想社, 1968.

일관계는 오랫동안 결착이 유보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1972년의 중일국교회복도 본질적인 결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는 결착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양국 간 관계의 회복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오로지 경제적인 상호관계만이 깊고 넓게 진전되어 왔던 것이다.

6. 일본과 중국의 냉담한 관계

중일 간의 본질적인 결착이 이루어지려면, 과거의 역사인식과의 관련 속에서 앞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¹⁴⁾ 우리는 이웃 중국과 어떻게 아시아의 평화를 확보해 갈 것인가? 이것이 헤이세이(平成)일본의 평화의 운명과 연관된 본질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리고 중국 역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다시 말해 아시아에서의 평화라는 상호의 국가적 운명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적인 상호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미 정치군사적으로 대국이 된 중국은 21세기 현재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국을 눈앞에 둔 채 우리는 찢찢매고 있다. 이 대국 중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실현해 갈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 이웃 중국의 정치적 현상에 관해 심각한 위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위구심이란 민중적 요구를 국가의 정치과정에서 매개하는 민주적 회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체제변혁에의 가능성을 공산당 이외의 다른 세력에게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일당독재의 국가적 정치상황에 대한 것이다. 중국의 그러한 정치상황이 중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의 미래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오지 못했다.¹⁵⁾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중국과의 본질적인 결착을 이루어 내지 못해 온 탓일지도 모른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14) 나는 이 합의가 있어야 중일 간의 본질적인 우호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15) 2010년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劉曉波, 1955~)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공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한 중국의 공산당정부의 탄압에 일본정부는 전혀 항의하지 않는다. 정부만이 아니다. 일본의 대다수 지식인과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류샤오보 문제와 관련된 나의 발언은 『天安門事件から'08憲章』へ(東京: 藤原書店, 2009)를 참조.

우리는 본질적인 이웃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 관계를 아무리 심화시킨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냉담한 관계이다. 왜 그럴까? 중국문제에 관한 고찰은 바로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나의 고찰도 이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서양의 선진 문명국가에 기초를 둔 근대 일본의 국가 건설은 중국을 정체된 아시아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아시아에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해 간 일본은 중국을 제국주의적인 야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중일전쟁은 제국 일본과 중국 간의 근대관계사에서 최악의 귀결이었다. 이 중일전쟁에 다다른 일본 근대사의 과정 속에서 중일관계의 미래에 결부될 수 있을, 희망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과연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 과정 일체는 ‘마이너스의 유산’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 과정에서 부족하나마 우리의 희망을 이어 갈 수 있는 이들의 족적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신해혁명(1911)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족적이다. ‘함께한다’는 것은 중국의 변혁의 고난을 함께하는 것인 동시에, 그 변혁을 일본의 변혁으로 삼아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렇듯 중국과 일본의 변혁을 함께한 이들을 좋은 의미에서 ‘아시아주의자’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 다치바나 시라키, 오자키 호쓰미 등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¹⁶⁾

7. 전후 일본과 중국

전후 일본에는 친중국파라 부를 수 있을 지식인들이 많지 않은가, 그들이야말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이룬 사람들이지 않았는가 등, 질문이라고도 할 만한 목소리가 내 귀에도 들린다. 중국 연구자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1910~1977)로 대표되는 친중국파 지식인들은 냉전 하 미

16) 내가 쇼와이데올로기연구회에서 발표하고 잡지 『현대사상』(現代思想)에 연재(2011. 9~)하고 있는 「중국론을 읽는다」(中國論を読む)는 이런 인물들의 족적을 밝혀 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을 비판하며 대안적인 길을 제시해 왔다. 인민중국의 승인 및 아시아 각 민족들과의 연대로 이루어진, 아시아민족주의라 칭할 만한 길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적 혁명과 그 성과로 성립된 ‘인민중국’의 전면적 승인을 특징으로 하는 다케우치의 중국관은 전후 일본의 중국 연구자를 비롯한 혁신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인식, 역사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⁷⁾ 마오쩌둥의 혁명과 인민중국에의 강력한 지지에 기반한 이 중국관은 전후 일본에서의 ‘인민중국의 특권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인민중국’은 그들의 세계인식, 역사인식에서 기축으로서 특권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민중국의 특권화’는 일본과 중국이 본질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과연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 나는 이 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전후의 냉전구조로 인해 일본의 혁신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강조된 ‘인민중국의 특권화’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든 현재, 이 ‘인민중국의 특권화’는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국가관료 주도의 자본주의 대국인 중국을 타성적으로 승인하도록 이끄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과 중국이 본질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본질적인 관계를 맺어서 해소해야 할 허위와 억압의 사태를 은폐한다. 따라서 그것은 내가 20세기 중일관계사에서 계승해야 할 것으로 발견한 ‘아시아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말한 ‘아시아주의’는 일본과 중국이 자기혁신을 함께함으로써 찾아가는 진정한 연대이다. 일본과 중국의 본질적 관계는 바로 이 연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7) ‘탈아입구’(脫亞入歐)가 문명화된 근대 일본의 핵심축이라고 한다면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주의’는 이에 대항하는 이단적 축을 구성한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일본’이라는 자기부정적인 낭만파적 반어의 속성을 지닌 다케우치의 ‘중국주의’적 비판은 전후 50년대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近代の超克』とは何か(東京: 青土社, 2008) 참조.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김인수(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보조원)가 번역하였다.